

불신앙을 선택한 왕들과 복음을 선택한 왕들

- 복음으로 여는 역대하 -

역대하9:13-28, 에베소서6:12

정윤돈 목사님

‘천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과 특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땅에서 237 나라 치유하고 서밋도 살릴 수 있는 비전과 그러한 천명, 소명, 사명과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먼저 강단메시지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의 제자가 되어 서밋을 살리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과 특히 후대들 중에는 앞으로 사장, 기업가, 선생님, 교수, 장군, 장관, 고위 공직자, 대통령과 같은 리더, 서밋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성공했을 때 성도들과 램넌트들은 조심해야 한다. 먹고 살만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나의 사명과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탄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왔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다. 아담과 하와도 먹고살만 하니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알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고 설교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씀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국가는 이 세상에 많은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음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과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오늘 살펴볼 역대하서를 통하여서도 복음적인 권선징악의 내용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들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나의 인생에 적용해야 하겠다. 그러나 역대하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자하는 최고의

영적인 비밀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왕도 대통령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의로운 왕과 지도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참된 왕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과 나라에 왕이 되셨을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으로 우리는 왕으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그림자적인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왕도 의로운 왕이 없다.

1.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잘못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 왕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겠다.

(1) 역대하 12장 14절에 1대 유대왕 르호보암의 악을 지적하고 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2) 3대왕 아사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꾸지람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역대하 16장 10절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3) 4대왕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꾸지람을 듣는다. 역대하 19장 2절이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언약의 왕조인 유다왕족의 후대가 멸종 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성공하자 악한 아합을 주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여호사밧은 착한 왕이었지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4) 5대왕 여호람의 악이다.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그의 아우들과 정적들을 제거하였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었다. 역대하 21장 6절에는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로 보건데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두 번째로, 유다 왕들의 선행과 받은 축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분열하여 남유다 20명의 왕이 이어진다. 1대 르호보암, 2대 아비야,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 6대 아하시야, 7대 아달랴, 8대 요아스(여호

아스), 9대 아머샤, 10대 웃시아,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16대 요시아,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엘리아김), 19대 여호야긴(고니아, 여고니아), 20대 시드기야이다.

(1) 이 중에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역대하 전반부에는 솔로몬 왕의 선행과 받은 축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예배를 드렸다. 그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리고 세계문화를 바꿀 RUTC성전을 완성하였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와 재물과 전무후무한 축복도 주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또,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부과 헌신과 능력을 자랑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였다. 역대하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2) 그리고 3대왕 아사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증한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역대하 15장 8절이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아사 왕은 역대하 15장 12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왔다.

(3) 4대왕 여호사밧의 선행이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역대하 17장 5절에서 6절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

러나 남유다의 선한 왕들조차 말년에 가서는 악하게 되었다. 예외가 있다면 므낫세가 처음에는 악했으나 후에 선하게 된 예이다. 이는 비록 다윗왕조의 후대인 언약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처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서밋의 현장은 끝까지 빈 곳, 치유가 필요한 곳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를 통하여 붙잡아야 할 우리들의 CVDIP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다윗의 후손인 유대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러나 그 언약의 왕조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여 징계를 받기도 한 왕도 있었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큰 축복을 받기도 했다. 우리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을 받는 참된 서밋이 되어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왕들과 같은 지도자들과 모든 분야의 서밋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완전복음의 서밋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빈 곳이기 때문이다. 연예계, 정치, 스포츠 현장도 빈 곳이다.

3. Dream, 꿈이다. 모든 성도들과 램네프트 개인, 개인은 서밋이 되도록 도전하되 서밋이 되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서밋이 되도록 24시간 기도해야 하겠다.

4. Image, 이미지이다. 모든 성도들은 지금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과 지도자들을 복음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아는 중직자들과 후대들이 모든 분야의 리더가 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전해야 하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도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기도만 있으면 결국은 응답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승리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기능의 서밋이 되게 하시고, 사탄에게 빼앗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문화의 서밋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서밋이 되었지만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사탄의 손 안에 있으며, 착각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명자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